

만주어 주기도문에서의 “*yaya hacin i jemengge ci colgororo……*”의 내원(來源)

김 동 소
(대구가톨릭대)

1. 문제의 제기

본 연구는 Louis de Poirot, S. J. (1735 - 1813, 중국명: 賀清泰) 신부가 역성(譯成)한 일본 도요분코[東洋文庫] 소장 만주어 성서¹⁾ 중의 주기도문(Paternoster)에 들어 있는 “*yaya hacin i jemengge ci colgororo……*”의 내원(來源)을 밝히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두루 알려진 대로 기독교도들이 일상 애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신약성서 중 마태오 복음서(Evangelium secundum Matthæum, Κατὰ Μαθθαίου)의 6장 9절에서 13절까지에 들어 있다. 먼저 이 기도문의 한국어 역문을 제시해 둬

1) 일본 도요분코 소장의 만주어 성서 원고본(原稿本)이 Louis de Poirot, S. J. 신부의 육필(肉筆) 원고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김동소 (1992: 90-4, 2001: 95-6, 2003: 31-3) 참조.

논지 전개 순서가 될 듯하여 그 전문을 영어 역문과 함께 인용한다.²⁾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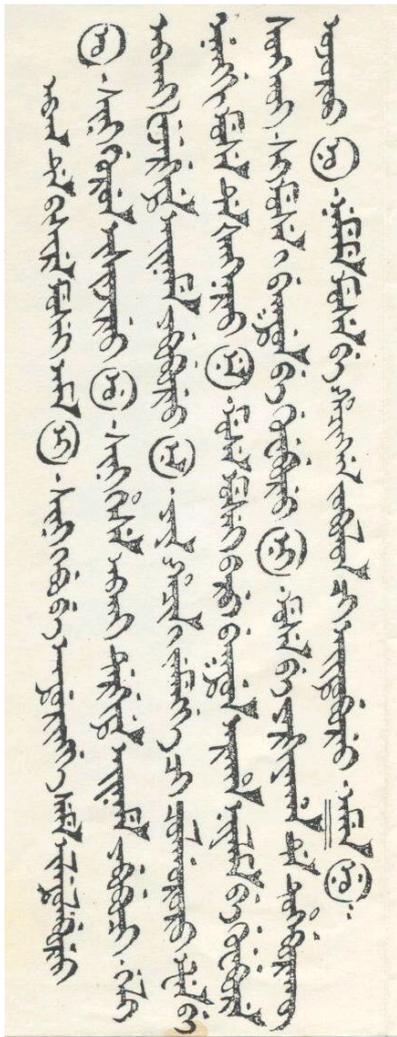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the wrong we have done
as we forgive those who wrong us.
Subject us not to the trial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⁴⁾

2) 실제로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도들이 일상 애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이와 조금 다르다. 현재 한국의 천주교도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 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 멘”으로, 한국의 개신교도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염송한다. 이런 점은 아래의 영문 주기도문의 경우도 동일하다.

3) 대한 성서 공회 발행『공동 번역 성서(개정판)』(2000년 11월, 제4쇄)에서 인용.

4) *The New American Bible*, Iowa Falls, World Bible Publishers, 1976에서 인용.

그런데 Louis de Poirot 신부가 역성한 만주어 마태오 복음서⁵⁾에 들어 있는 주기도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원문은 사진 도판 참조).



<만주어 주기도문(마태오 6장 9-13절)>

5) de Poirot 신부가 역성한 만주어 마태오 복음서에 관해서는 김동소 (1996) 참조.

Abka de bisire musei ama,
 하늘 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sini gebu be enduringge seme iletulebureo,
 당신의 이름 을 거룩하게 드러내소서.
 sini gurun isinjireo,
 당신의 나라가 이르소서.
 sini hese abkai dergide ainame yabubuci,
 당신의 뜻이 하늘의 위에서 어떻게 행해지면,
 geli abkai fejergide ainame yabubureo,
 또 하늘의 아래에서 그렇게 행해지소서.
 yaya hacin i jemengge ci colgororo efen be enenggi muse de šangnarao,
 여러 종류 의 식량 중에서 탁월한 떡 을 오늘 우리 에게 상급하소서.
 muse musei baru bekdun araha niyalma be guwebure songkoi,
 우리가 우리 쪽에 빛 진 사람 을 용서한 대로
 si muse i bekdun be guwebureo,
 당신은 우리 의 빛 을 용서하소서.
 muse be yarkiyahan de tuheburakū ojuoro,
 우리 를 유혹 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nememe muse be hacingga jobolon ci aitubureo, amen.
 또한 우리 를 온갖 재난 에서 구조하소서. 아멘.

이 만주어 주기도문의 다른 부분은 그 번역에 별문제가 없으므로 잠시 그만 두고 제6행인

yaya hacin i jemengge ci colgororo efen be enenggi muse de šangnarao,
 여러 종류 의 식량 중에서 탁월한 떡 을 오늘 우리 에게 상급하소서.

에 관해서만 연구의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이 구절의 만주어 번역이 석연치 않은 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한국어역과 영어역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부분의 기도문은, 예컨대 영어역으로 말하면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로 되어 있다. 다른 언어역도 같은 의미로 번역되어 있다. 동일 구절에 대한 몇몇 외국어역을 제시해보면, “Donne-nous aujourd'hui notre pains de ce jour.” (French), “Unser

tägliches Brot gib uns heute.” (German), “Dacci oggi il nostro pane quotidiano,” (Italian), “el pan nuestro de cada dia, dánosle hoy,” (Spanish), “求祿今天賞給我們日用的食糧,” (중국어), “われらの日用の糧を今日われらに与えたまえ.” (일본어) 등과 같이 되어 있어 그 의미는 거의 흡사하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Louis de Poirot 신부의 만주어 번역만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 의문이 아닐 수 없다.⁶⁾ 이제 이 문제를 구명해 보고자 함이 이 연구의 목적인 것이다.

2. 저본(底本)에서의 해당 구절

Louis de Poirot 신부의 위와 같이 특이한 번역의 내원을 구명하기 위해 우선 이 번역의 저본(底本)을 추구해 보기로 한다. 이미 밝혀진 대로 Louis de Poirot 신부가 역성(譯成)한 만주어 성서의 저본은 Vulgata Latin어 성서이다.⁷⁾ 먼저 Vulgata Latin어 성서의 주기도문 전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Pater noster, qui es in cælis, sanctificetur nomen tuum. Adveniat regnum tuum. Fiat voluntas tua, sicut in cælo et in terra. **Panem nostrum supersubstantialem da nobis hodie.** Et dimitte nobis debita nostra, sicut et nos dimittimus debitoribus nostris. Et ne nos inducas in tentationem. Sed libera nos a malo. Amen.⁸⁾

6) Louis de Poirot 신부의 만주어 주기도문과 다르게 번역된 만주어 주기도문 2종이 더 있다. 상이한 만주어 기도문의 해당 구절을 참고로 기재하면 다음과 같다. “*be simbe erehunjeme meni enenggi baitalara jeku be enenggi mende bureo* 우리가 당신께 간청하는데, 우리의 오늘 필요한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meni inenggidari baitalara jemengge be enenggi mende šangnara* (우리의 매일 필요한 음식을 오늘 우리에게 상급하소서)”. 이들 만주어 주기도문의 출전과 번역 및 주석은 김동소 (1995: 7-12) 참조. 한 가지 흥미 있는 것은 우리말로 ‘양식’으로 번역한 Latin어 단어 panis (빵)을 만주어로는 ‘efen(떡), jeku(양식), jemengge(식량)’ 등으로 다르게 번역했다는 점이다.

7) 김동소 (1992: 88-94, 1999: 226, 2003) 참조. 그 가장 주요한 근거는 고유 명사의 표기이다.

아마도 Louis de Poirot 신부가 읽었던 Vulgata Latin어 성서의 주기도문은 위의 기도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믿어진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구절인 "Panem nostrum supersubstantialem da nobis hodie."에서 'supersubstantialem'의 해석이 관건이 되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현재 Roman Catholic Church에서 사용중인 Latin어 Paternoster (= Oratio Dominica, 주기도문)의 경우, 해당 구절은 "Panem nostrum **quotidianum** da nobis hodie."로 되어 있다.⁹⁾ 이렇게 'supersubstantialem'과 'quotidianum'의 상이한 단어로 번역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대로 복음서 중의 주기도문은 위의 마태오 복음서 외에도 루가 복음서 (Evangelium secundum Lucam, Κατὰ Λουκᾶν) 11장에도 들어 있는데, 이 루가 복음서에 의하면 해당 구절의 Vulgata Latin어 번역은 "Panem nostrum **quotidianum** da nobis hodie."이다. 'supersubstantialem'은 'super-'(초과, 잉여, 잔존) + 'substantialis'(본질적)으로 분석 가능하고 'quotidianum'은 'quotidie'(매일, 일상, ← quot + dies)의 형용사형이므로, 현재 각국의 주기도문에서 문제의 구절은 루가 복음서의 의미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de Poirot 신부가 역성한 만주어 주기도문의 "yaya hacin i jemengge ci colgororo"(여러 종류의 식량 중에서 탁월한)은 얼핏 보아 Latin어의 'supersubstantialem'과도 'quotidianum'과도 의미가 정확히 일치된다고 보기 어렵다.¹⁰⁾ 그렇다면 de Poirot 신부의 위와 같은 번역의 내원은 무엇일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먼저 저본의 Latin어 단어인 'supersubstantialem'과 'quotidianum'의 정확한 의미를 구명해 보기로 한다.

먼저 'quotidianum'의 경우는 그 의미가 '매일의, 일상의'로서, 이 단어는

8) *Biblia Sacra Juxta Vulgatæ*, editio octava (1887, Paris: Librairie Letouzey et Ané) p. 1102에서 인용한 것임.

9) *Missale Romanum*, Edition typica, typis polyglottis Vaticanis, 1957에 의함.

10) Roman Catholic Church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듯한 『羅和辭典』(田中秀央 편, 東京, 研究社, 1980)과 『라틴-한글 사전』(허창덕 편, 서울, 가톨릭 대학교 출판부, 1995)에 의하면 'supersubstantialis'의 의미는 '일용(日用)의, 생활 필수, 매우 중요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등으로 대역되어 있다. 이 중 '일용의'란 대역어는 'quotidianus'란 단어의 영향을 받은 의역으로 보이는데, 어원적으로 보아 'supersubstantialis'란 단어에 '일용의'란 의미는 없다.

Latin어 문헌에서 명확한 의미를 지닌 채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므로 논의의 여지는 없다.¹¹⁾ 다만 'supersubstantialis'는 Vulgata Latin어 신구약 성서 전반을 통해 마태오 복음서의 이 문맥에만 등장하는 단어(유일례)로 그 의미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 단어는 'super-'(초과, 잉여, 잔존) + 'substantialis'(본질적)으로 분석되지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이다.

이 단어의 철학적 의미까지 추구하는 일은 너무 번거로우므로 피하기로 하고, 이 Vulgata Latin어 성서의 저본이 되는 그리스어 성서를 우선 고찰해 보기로 한다. 그리스어 성서의 해당 구절은 'τὸν ἄρτον ἡμῶν τὸν ἐπιούσιον δὸς ἡμῖν σήμερον'으로서 'supersubstantialem'은 'τὸν ἐπιούσιον'의 번역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먼저 'ἐπιούσιον'의 의미를 구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불행히도 이 그리스어 단어 'ἐπιούσιον'도 그리스어 문헌에는 마태오와 루가의 복음서에 각각 1회씩 총2회, 그리고 기원후 10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믿어지는 Διδαχη¹²⁾ 8장 2절에 1회, 도합 3회만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f. Smith (1955: 144), Arndt & Gingrich (1979: 296-7). 따라서 이 단어의 해석도 성서학계의 난문제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정리해 둔 Arndt & Gingrich (1979: 297)를 요약·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1) 이 단어는 성서 안에서 "Praeter illa quae extrinsecus sunt, instantia mea **quotidiana**, sollicitudo omnium ecclesiarum. (이런 외적인 것들 외에도 나의 **매일의** 절박한 일은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이다.)" (2 Cor. 11, 28) 등 흔히 사용되고 있다. cf. de Raze *et al.* (1958: 585).
- 12) 기원후 100년경에 Syria에서 기록되었다고 믿어지는 이 그리스어 문헌은 마태오 복음서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헌 8장 2절에 마태오 복음서 6장의 주기도문과 거의 비슷한 주기도문이 들어 있다. 정양모 (1998, 특히 1998: 7-13, 60-1) 참조. 참고로 Διδαχη에 게재된 주기도문 전문을 아래에 전제한다(마태오 복음서의 주기도문과 다른 부분은 진하게 표시함). Πάτερ ἡμῶν ὁ ἐν **τῷ οὐρανῷ** ἁγιασθήτω τὸ ὄνομά σου· ἐλθέτω ἡ βασιλεία σου· γενηθήτω τὸ θέλημά σου, ὡς ἐν οὐρανῷ καὶ ἐπὶ γῆς· τὸν ἄρτον ἡμῶν τὸν ἐπιούσιον δὸς ἡμῖν σήμερον· καὶ ἄφες ἡμῖν **τὴν ὀφειλὴν** ἡμῶν, ὡς καὶ ἡμεῖς **ἀφίεμεν** τοῖς ὀφειλέταις ἡμῶν· καὶ μὴ εἰσενέγκῃς ἡμᾶς εἰς πειρασμόν, ἀλλὰ ῥύσαι ἡμᾶς ἀπο τοῦ πονηροῦ. **δοτι σοῦ ἐστιν ἡ δύναμις καὶ ἡ δόξα εἰς τοὺς αἰῶνας.**

1. deriving it from ἐπι and οὐσία *necessary for existence*.
2. a substantivising of ἐπι τὴν οὐσίαν that is ἡμέραν *for the current day, for today*.
3. *for the following day* from ἡ ἐπιούσα that is ἡμέρα.
4. deriving it from ἐπιέναι,
 - a. on the analogy of τὸ ἐπιόν = 'the future', *bread for the future*.
 - b. in the meaning 'come to' : *give us this day the bread that comes to it, i.e. belongs to it*.
 - c. equal to ἐπιών = *next*.
 - d. The petition is referred to the *coming* Kingdom and its feast.

결국 이 그리스어 단어 ἐπιούσιον은 ‘생존에 필요한, 오늘을 위한, 내일을 위한, 미래를 위한, 다가올’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¹³⁾

3. “yaya hacin i jemengge ci colgororo”의 해석

그리스어 단어 ἐπιούσιον의 의미를 위와 같은 정도로 파악하고 여기서 다시 Latin어 단어 'supersubstantialis'로 돌아가기로 한다. Blaise (1975: 892)에

13) *cf.* All spiritualising mystical meanings of ἐπιούσιον are to be discarded. This is the one puzzling word in the prayer. It is a ἄπαξ λεγ., not only in O. and N. T., but in Greek literature, as known not only to us, but even to Origen, who (*De Oratione*, cap. xxvii.) states that it is not found in any of the Greeks, or used by private individuals, and that it seems to be a coinage (ἔοικε πεπλάσθαι) of the evangelists. It is certainly not likely to have proceeded from our Lord. This one word suffices to prove that, if not always, at least in uttering this prayer, Jesus spoke in Aramaean. He would not in such a connection use an obscure word, unfamiliar, and of doubtful meaning. The problem is to account for the incoming of such a word into the Greek version of His doubtless simple, artless, and well-understood saying. The learned are divided as to the derivation of the word, having of course nothing but conjecture to go on…… Nicoll (1970: 121).

는 "qui est au-dessus de toute substance, transcendant la substance"로, Blaise (1993: 799)에는 "nécessaire à la subsistance : *panem nostrum s., Mat. 6, 11;* Hier. Mat. 1, 6, 11 (il l'interprète soit au sens de : excellent, au-dessus de toutes les substances; soit : concernant la nourriture présente et non celle du lendemain, cf. *1 Tim. 6, 8*)"로 해석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물질을 초월하여 물질 위에 있는(qui est au-dessus de toute substance, transcendant la substance), 생계에 필수적인(nécessaire à la subsistance), 모든 물질 위에 있어 탁월한(excellent, au-dessus de toutes les substances), 내일이 아닌 현재의 양식에 관한(concernant la nourriture présente et non celle du lendemain)’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결국 다의어인 Latin어 단어 'substantia'를 ‘물질, 본질’의 의미로 해석하느냐, ‘생계, 식량, 양식’의 의미로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귀납되는 것이다.

그런데 de Poirot 신부는 이를 "yaya hacin i jemengge ci colgororo"로 번역하였는데 여기 'jemengge(음식)'라는 단어가 들어 있음을 보아 Latin어 단어 'substantia'를 ‘물질, 본질’이 아니라 ‘식량, 양식’의 의미로 파악했다고 믿어진다. 'yaya hacin i'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만주어에서 'jemengge'와 같은 불가계수적(不可計數的) 의미를 가진 단어의 경우 복수 접미사를 후접할 수 없기 때문에 복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이런 관형어를 사용한 것으로 믿어진다.¹⁴⁾

이 문장 중에 나오는 'colgororo'란 만주어 단어는 동사 'colgorombi'의 동명사형(Nomina verbalia)으로서, 조선조의 사역원(司譯院) 만주어 문헌¹⁵⁾ 중에서는, 1748년(영조 24년)에 청학 훈장(淸學訓長)이자 역관(譯官)이었던 현문

14) 만주어 명사의 복수 형성 접미사에는 'sa, se, so, si; ta, te; ri' 등이 있지만 이들은 인간을 의미하는 명사에 접미함이 원칙이다. cf. Gabelentz (1832: 22), Haenisch (1961: 40). 박은용 (1973: 37-9), 季永海 등 (1986: 111-4). 그러나 烏拉熙春 (1983: 91)에 “表示複數形式……加接頭詞 *tanggū hala*(百姓), *geren leolen*(輿論), *elemorin*(所有的馬), *yaya baita*(諸事), *ududu baita*(許多事).”로 되어 있듯이 'yaya'와 같은 단어를 해당 명사 앞에 놓아 그 명사의 복수형을 만들 수 있다.

15) 조선조 사역원 만주어 문헌으로는 『동문 유해(同文類解)』(1748), 『청어 노걸대(淸語老乞大)』(1765), 『삼역 총해(三譯總解)』(1774), 『소아론(小兒論)』(1777), 『팔세아(八歲兒)』(1777), 『한청 문감(漢淸文鑑)』(1779?) 등이 전해진다.

항(玄文恒)이 편찬한 중국어·조선어·만주어 대역 어휘집인『동문 유해(同文類解)』와, 1779년(정조 3년)경 청학관(淸學官) 김진하(金振夏) 등이 편찬한 중국어·조선어·만주어 대역 사전인『한청 문감(漢淸文鑑)』에 “超羣/出衆(하다/출고로코비¹⁶⁾)”가 나올 뿐 다른 사역원 문헌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다만 중국 청대(淸代)의 고전 만주어 문헌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어휘이다. 몇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geren i bodogon ci **colgorome** tucike, etere be toktobuhangge abkai gūnin de lak seme acanaha. (여럿의 꺾 중에서 **탁월하게** 나타나 승리를 결합은 하늘 뜻에 바로 합치한다.) [平定金川方略]

fur fur sere banjibure edun **colgoroko** den alin de isinambi ni. (산들산들 이는 바람, **뛰어나게** 높은 산에 이르도다.) [詩經, 谷風之習: 習習谷風 維山崔嵬]

colgorome tucike seme akdularangge, ceni emu jalan i amba baita, umai emu tangkan wesire de duibuleci ojarahū. (**탁월하게** 뛰어난다고 보증하는 것은 그들 일대의 큰일로서 한 계급 승진하는 것에 비교될 수 없다.) [上諭八旗]

Tušan i baita be akūmbume faššame yabuhangge, jiyanggiyūn sei dolo **colgoroko** seci ombi. (직책의 일을 최선을 다해 힘써 행함은 장군들 중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八旗滿洲氏族通譜]

결국 ‘colgororo’의 의미는 ‘탁월한, 뛰어난’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de Poirot 신부는 'supersubstantialis'를 ‘모든 식량 위에 있어 탁월한(excellent, au-dessus de toutes les substances)’으로 파악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실제로 이 Latin어 단어 'supersubstantialis'는 ‘모든 물질 위에 있어 탁월한(excellent, au-dessus de toutes les substances)’이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16) ‘출고로코비’는 어간 ‘colgoro-’와 어미 ‘-kobi’의 결합형이다. 어미 ‘-kobi’는 “과거에 어떤 행동이 행해졌음을 강조적으로 설명하는” 뜻을 지닌 형태소이다. 山本謙吾 (1981: 493) 참조.

‘물질(substances)’이라는 개념을 ‘식량(subsistances)’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번역한 결과로 보이는 것이다. 결국 de Poirot 신부는 Latin어 접두사 'super'를 'to or in a position higher than, over, above; above the normal vertical level of; on top of' (cf. Glare 1985: 1872)의 의미로, 'substantia'를 ‘식량, 음식’의 의미로 상징함으로써 'supersubstantialis'를 ‘여러 식량(yaya hacin i jemengge) 중에서(ci) 탁월한(colgororo)’으로 번역한 것이라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다.¹⁷⁾

참고문헌

- 김동소. 1977/1982. 『동문 유해 만주 문어 어휘』. 대구, 효성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동소. 1992. 「東洋文庫藏 滿洲文語 聖書稿本 研究」. 『신부 전달출 회장 화갑 기념 논총』. 대구, 매일신문사. 77-97.
- 김동소. 1995. 「3종의 滿文 주기도문」. 『알타이 학보 5』. 1-14.
- 김동소. 1996. 「滿文 『聖 MATTHAEUS 복음서』 연구」. 『한국 전통 문화 연구 11』.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55.
- 김동소. 1999. 「Tungus어 성서에 관해서」. 『알타이 학보 9』. 207-31.
- 김동소. 2003. 「최초 중국어·만주어 성서 譯成者 賀清泰 신부」. 『알타이 학보 13』. 15-39.
- 박은용. 1973. 『만주어 문어 연구(二)』. 대구, 형설출판사.
- 정양모. 1998.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 왜관, 분도출판사.
- 季永海·劉景憲·屈六生. 1986. 『滿語語法』. 北京, 民族出版社.
- 胡增益. 1994. 『新滿漢大詞典』.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 金東昭. 1992. 『女眞語, 滿語研究』. 北京, 新世界出版社.
- 金東昭. 2001. 「東洋文庫藏現存滿文聖經稿本介紹」. 『滿族研究 64』. 瀋陽, 遼寧省民族研究所. 92-6.

17) 아울러 현재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supersubstantialem'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낱말의 모호성으로 인해, 루카 복음서의 'quotidianum'을 원용하여 번역한 것임도 덧붙여 지적해 둔다.

- 山本謙吾. 1981. 『滿洲語文語形態論』. 『世界言語概説 下卷』(第10刷). 東京, 研究社.
- 烏拉熙春, 愛新覺羅. 1983. 『滿語語法』.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 Arndt, William F. & F. Wilbur Gr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laise, Albert. 1975. *Lexicon latinitatis medii aevi*. Turnholti, Brepols.
- Blaise, Albert. 1993. *Dictionnaire latin-français des auteurs chrétiens*. Turnholti, Brepols.
- Boismard, M.-É., O. P. 1995. "«Notre pain quotidien» (Mt 6, 11)", *Revue Biblique*. Paris, Librairie Lecoffre. pp. 371-8.
- Cassien, Jean. 1958. *Conférences VIII-XVII*. Paris, Les Éditions du Cerf.
- Gabelentz, Conon de la. 1832. *Éléments[sic] de la Grammaire mandchoue*. Altenbourg, Comptoia de la littérature.
- Glare, P. G. W. 1985. *Oxford Latin Dictionary*. Oxford, The Clarendon Press.
- Haenisch, Erich. 1961. *Mandschu-Grammatik mit Lesestücken und 23 Texttafeln*. Leipzig, VEB Verlag Enzyklopädie.
- Nicoll, W. Robertson. 1970. *The Expositor's Greek Testament*. New York, George H. Doran Company.
- de Raze, Henricus & Edmundus de Lachaud, Joan. Bapt. Flandrin. 1958. *Concordantiarum SS. Scripturae Manuale*. Aviñó, Barcinone.
- Smith, J. B. 1955. *Greek-English Concordance to the New Testament, A Tabular and Statistical Greek-English Concordance Based on the King James Version with an English-to-Greek Index*. Scottsdale, Herald Press.
- Sary, Giovanni. 2003. "Jesus Introduced to the Manchus", *The Chinese Face of Jesus Christ*, Volume 2. Sankt Augustin, Institut Monumenta Serica and China-Zentrum. pp. 599-611.

[Abstract]

**The Source of “*yaya hacin i jemengge ci colgororo*. . . .”
in Manchu Paternoster**

Kim, Dongso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ource of the phrase *yaya hacin i jemengge ci colgororo*, . . . ('[give us today the] excellent [one] above all kinds of food') in the paternoster of the Manchu Bible translated by Father Louis de Poirot, S. J. De Poirot's translation is interesting because it is quite different from the usual ones in most other languages, which says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The base for de Poirot's translation is the Vulgate Latin Bible. In this Bible, the phrase has been found by the present study to appear in two different words: as 'supersubstantialem' in Matthew, and 'quotidianum' in Luke. These two words have been turned out to be variant translations of the Greek ἐπιούσιον, a rare word which has been used only in the phrase of the paternoster. Importantly, the former means roughly 'above all substance(s),' and the latter means something like 'daily.'

The conclusion is that the source of de Poirot's phrase in the Manchu paternoster must be the Latin 'supersubstantialem' in Matthew, which was translated into Manchu as 'excellent, above all the substances,' with the word 'substances' taken as 'subsistence' or 'food.' The source for our usual 'daily' type translation in the paternosters of most other languages then must be the Latin 'quotidianum' in Luke.

▶Key Words: Manchu Bible, Manchu Paternoster, Vulgate Latin Bible, quotidianum,
Fr. Louis de Poirot, S. J., supersubstantialis.

김동소(金東昭, Kim, Dongso)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국어학(국어사, 알타이어학), 성서 번역,

전자 우편 : jakob@chol.com

우리집 : <http://jakob.mchol.com>

전화 010-3072-3116, (053)850-3116, 3101[사무실], (053)782-0629[집].

논문투고일 : 2005년 4월 28일

심사완료일 : 2005년 6월 5일

게재확정일 : 2005년 6월 10일

K C I